

## <국문요약>

관광은 세계 최빈국 50개국과 개도국의 빈곤을 완화하고 지역이 자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해주는 효과적인 개발수단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관광기구(UNWTO), 세계여행관광위원회(WTTC), 세계은행(World Bank),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국제적인 기관들은 지속가능한 관광-빈곤퇴치(ST-EP) 프로그램, 친빈곤관광(Pro-Poor Tourism: PPT)과 같은 다양한 개발 프로그램을 착수함으로써 빈곤퇴치를 포함한 새천년개발목표(MDGs)에 기여하고자 노력해 오고 있다. 국내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 UNWTO ST-EP재단, 한국국제협력단과 같은 기관들이 개도국의 관광관련 개발원조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나, 빈곤과 관광에 대한 이슈의 복잡성과 정보 및 통합적인 이해 부족으로 인해 사업의 규모와 유형이 매우 제한적으로 전개되어 왔다. 관광은 본래 개발과 보전, 하드웨어사업과 소프트웨어사업 등을 망라하는 스펙트럼이 매우 넓은 산업적 특성을 지닌다. 또한 관광은 다양한 분야와 상호교류가 가능하고, 관광공급자인 관광사업체와 관광수요자인 관광객과의 이해와 교류가 동반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는 사회현상이자 사업이다. 특히 지역사회가 있는 관광지는 관광자원뿐만 아니라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와 관광객까지도 함께 상호작용하고 있는 변화하는 유기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관광분야의 ODA 사업은 타 분야와는 달리 관광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문화적 환경을 고려해야 하며, 사업의 초기단계인 사업선정 단계에서부터 관광의 다면적인 측면을 고려할 수 있는 종합적인 사업선정 지표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 관광 ODA 사업은 원조사업 분류에서 산업에너지에 분류되어 관광만의 독특한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되어 오지 못한 실정이다. 향후 관광 ODA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원국의 관광과 관련된 다양한 스펙트럼적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해야 하며, 우선적으로 관광 ODA 사업을 선정할 때 사업 제안서를 평가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표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관광 ODA 사업 선정 시 고려할 수 있는 사업선정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잠재적인 관광 ODA 사업모델을 발굴함으로써 향후 한국국제협력단의 관광분야 ODA 사업의 새로운 가능성 및 대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전반적인 관광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관광의 영역과 빈곤퇴치를 위한 관광의 역할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관광 분야에서 빈곤과 관련된 최근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관련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관광산업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영향 및 파급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결과, 관광산업은 전 세계 8.7%에 해당하는 일자리를 창출하여 개도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의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최근 대중관광의 형태를 벗어나 대안 관광, 지속가능한 관광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광산업은 부를 재분배하고, 쿼터나 관세가 없는 무역장벽이 없는 산업이며, 그 지역에 있는 자연자원이나 문화자원을 공공재적 가치로 보고 이용하는 등 다양한 자원을 바탕으로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다양한 영역에서 관광산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노동집약적이라는 특성 때문에 여성과 빈곤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으며, 지역 경제 전반에 걸쳐 후방연관효과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기반시설을 향상시키고 관광수용태세를 갖추게 하여 지역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모든 관광개발이 긍정적인 파급효과만을 지닌 것은 아니며 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관광산업은 선진국에 종속되는 경우가 많아 부정적인 효과를 유발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에게는 편익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며 관광지의 문화, 자연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관광산업에 경제적 지속성을 보장해줄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 및 New Tourism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주목받는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는 생태관광, 공정 관광, 커뮤니티 기반 관광, 친빈곤관광, 슬로우 투어리즘, 자원봉사관광, (소수)민족관광, 저탄소녹색관광, 농촌관광 등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빈곤퇴치를 위한 관광의 역할과 빈곤퇴치 주제를 다루고 있는 관광분야의 최근 연구들을 i) 사회·지역개발학적 접근, ii) 경제·경영학적 접근, iii) 범분야(인권) 연구, iv) 정책·공공협력 분야 연구, v) 환경적 접근 등의 주제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들은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으면서도 특히 빈곤퇴치를 위해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그 방법에 있어 수원국의 문화와 사회를 이해하고 환경적으로도 지속될 수 있는 통합적인 이해를 전제로 한 개발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관광분야 ODA 사업을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일본과 뉴질랜드의 원조기관 사례분석을 통해 1차적인 평가지표 항목 도출과 사업모델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하고자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JICA와 NZAID의 기관개요, 관광개발 사업부문, 대표 관광 ODA사업 사례를 검토한 결과, 두 기관 모두 자국 관광산업의 경험과 강점을 바탕으로 ODA사업을 확대하였으며, 사업의 내용은 하드웨어적 사업에서부터 소프트웨어 사업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또한 사업수행에 있어 해당 지역의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사업을 안정화하였으며, 때로는 원조국 민·관·학의 참여를 통해 지역 역량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관광개발에 앞서 해당 지역의 문화와 환경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였으며, 이를 위해 장기적인 사업을 기본으로 하여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와 사례분석을 통해 관광 ODA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성공요인과 제약요인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1차적인 평가지표 항목초안을 작성하였다. 다음으로 OECD/DAC에서 권장하는 ODA사업 평가 기준인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지속가능성을 큰 틀로, 도출한 1차 항목들을 각 평가기준별로 구성하였으며, 델파이 조사에 앞서 연구팀의 협의와 전문가의 자문과정을 통해 조사도구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항목을 바탕으로 ODA와 관련된 직접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 국제개발 담당자 및 관련분야 공무원, 국제개발 및 관광 관련분야 연구원 및 관광 관련분야 교수를 대상으로 2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각 평가기준별 평균값, 표준편차, 사분위수 범위, 내용타당도의 검증과정을 통해 적절성 평가항목 16개, 효율성 평가항목 10개, 효과성 평가항목 13개, 영향력 평가항목 10개, 지속가능성 평가항목 16개로 구성된 최종 관광부문 ODA 사업선정 지표를 도출하였다.

앞서 도출된 관광부문 ODA사업선정 평가지표는 적합성 평가를 통해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검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현지조사방법을 병행하였다. 현지조사를 통해 관광부문 ODA 사업선정 평가지표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현지의 총체적인 관광개발사업의 특성과 영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한 현지조사 결과, 사업선정 평가지표요인들 중 일부가 현지사무소에서 측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어 최종 관광부문 ODA 사업선정 지표를 필수평가지표와 선택적용 평가지표로 분류하고, 각각의 ODA 사업에 적합한 항목을 구성하여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 외의 현지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관광산업은 캄보디아의 핵심산업으로 나타났으며, 현지종사자들은 대체적으로 관광산업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는데, 앙코르왓이 위치한 시엠립 지역이 최대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내 가장 빈곤한 지역이라는 점, ODA 사업선정 과정에 있어서도 대부분 국제조정위원회(ICC)에 의하여 사업이 결정되고 있었으며 이 과정에 사업을 시행할 기관들의 참여가 없다는 점 등이다. 이는 향후 관광 ODA 사업이 지역주민 참여 및 균등한

분배를 보장하고 사업선정과정에 있어서도 사업수행 기관 및 관련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되어 정책논의 과정에서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향후 KOICA에서 수행할 수 있는 관광 ODA 사업 모델을 제시하기에 앞서 관광 ODA 사업의 스펙트럼을 제시하였다. 스펙트럼을 따라 관광 ODA사업의 유형은 하드웨어적인 사업과 소프트웨어적인 사업, 자원 개발적인 사업과 자원 보전적인 사업의 특성으로 분류되며, 이 두 가지의 특성을 양극단으로 관광 ODA 사업은 관광도시, 관광단지, 리조트 등의 하드웨어적이면서 개발 위주의 사업으로부터 공정관광, 생태관광, 민족관광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이면서 보전 위주의 사업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같은 스펙트럼이 넓은 관광분야 ODA 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관광매력물, 관광 편의서비스, 관광홍보 및 마케팅, 관광교통, 관광객 그리고 관광지원 정책별로 ODA사업의 전략적인 방향과 구체적인 사업을 제시하였다. 각 분야별 사업은 사업의 규모에 따라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로 분류하여 실제 사례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관광과 빈곤퇴치를 포괄하는 ‘빈곤퇴치관광’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광과 빈곤에 대한 관계에 대해 광범위하게 고찰하였으며, 관광분야 원조사업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관광부문 ODA 사업 선정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관광개발사업 선정 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표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수원국의 현실에 따라 적절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으며, 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관광산업은 다른 산업과의 연관성이 높은 산업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와의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특히 절대빈곤층에 대한 식수, 식량, 에너지 등 기초적인 인프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포괄적인 지원방안이 탐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사업선정지표를 현지사무소, 지역주민 및 ODA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논의하고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금까지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성과정 없이 ODA사업이 선정되고 발굴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수원국의 빈곤완화를 위해 최대한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적절한 ODA사업이 선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콘텐츠 중심의 관광분야 ODA 사업모델은 효과적인 사업발굴과 사업선정을 위한 기초연구 자료로서 사용되어 향후 한국국제협력단이 관광분야 ODA 사업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